

<http://doi.org/10.5253/kpac.2026.57.7>

<조용전> 삽입시가의 양상과 기능*

고성혜**

차례

1. 들어가며
2. 서사 구조와 삽입시가의 양상
3. 삽입시가와 서사 전개에의 메커니즘
 - 1) 서사 전환의 행위적 장치
 - 2) 서사의 감정 형성 장치
4. 나가며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용전>에 삽입된 시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서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피는 글이다. 시가는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서사 전개에 있어 인물의 내면 내지는 감정을 드러내고 인물간의 갈등과 서사의 감정선을 그려내는 과정을 통해 주제 의식 등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삽입시가가 단순히 정서적 표현을 넘어 작품의 서사 구조와 주제 의식 형성에 긴밀히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먼저 <조용전>의 서사 구조를 면밀히 정리하며, 시가의 위치가 서사의 흐름과 감정 구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이어 3장에서는 정리된 양상을 토대로 삽입시가와 서사 전개에의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논의는 서로 다른 장르가 공존하는 현상 자체에서 나아가 서정 연표가 서사 담론에 일으키는 긴장감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다. 일련의 분석은 원형 비평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시가가 화자의 무의식이나 감정

* 이 논문은 2025년 제42차 한국시가문화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을 표출하는 수단이자 상징 장치임이 드러난다. 결국 삽입시가는 서사 전환의 행위적 장치 혹은 서사의 감정을 형성하는 장치로써 설명된다.

핵심어 : 조웅전, 삽입시가, 삽입가요, 갈래 교섭, 갈래 융합

1. 들어가며

<조웅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소설로 꼽히는 데 이견이 없다.¹⁾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판본만 살펴보더라도 판각본 경판 3종, 완판 약 15종, 안성판 1종, 필사본 약 50종, 활판본 약 10종 등 80여 종에 달하고, 제목 역시 <강위전>, <강희원전>, <도원전>, <순문제전>, <조원수전>, <조충신전>²⁾ 등으로 다양하게 전해지는 터라 가장 많은 이본을 가진 <춘향전>의 뒤를 잇는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본의 수와 작품의 인기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작품 향유의 방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기에 그 인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고전문학은 시대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으로 여러 형태를 갖는다. 같은 제목을 가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텍스트의 양상, 즉 이본의 형태에 따른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각본이 상업출판을 목적으로 한 공식 출판물로서 사실이 삭제되거나 축약되어 내용이 정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필사본이 수많은 필사자의 목소리가 개입되어 변이가 나타나는 통일성이 결여된 유일본³⁾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 1) <조웅전>은 연구에 따라 영웅소설, 군담소설 등으로 분류된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 장면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의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사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바, 목적에 맞추어 영웅소설이라 정리한다.
 - 2)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53, 지식음만드느지식, 2017, 3~252쪽.
 - 3) 권순궁, 「한국 고소설 텍스트의 존재방식과 소통 -<토끼전>의 경우-」(한국고소설학회 편, 『고전소설의 소통과 교섭』), 보고서, 2013, 16~18쪽 참조.

이본 형태가 갖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웅전>은 그래서 특별한 지점에 있다. 사실 <조웅전>은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고 영웅적인 면모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영웅소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에 비해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영웅소설들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상당하면서도 작품의 특성에 맞추어 이본 관계나 영웅소설로서의 서사 구조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 하지만 <조웅전>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 안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4) 김현양, 「<조웅전>의 현실성과 낭만성 : 갈등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24,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조희웅, 「조웅전 이본고 및 교주보」, 『어문학논총』 1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3; 민궁기, 「<조웅전>에 표현된 아름다움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안기수, 「『조웅전』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임성래, 「완판본 <조웅전>의 대중소설적 기법 연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조웅전> 판본 연구」,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윤경수, 「『조웅전』의 신화적 수용양상」, 『한성어문학』 19,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0; 윤경미, 「군담소설에 나타난 고난 극복 과정 연구 : 『조웅전』, 『유충렬전』을 중심으로」, 『기전어문학』 14-15,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김명신, 「『녹모단』과 『조웅전』의 비교 연구」, 『중국학논총』 1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6; 김명신, 「『녹모단』의 인물형상 연구 : 《조웅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8; 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경일남, 「<조웅전>의 가상회 화소 수용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8-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진성운, 「<조웅전>의 인물 형상의 분장(分場)」,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2012; 진성운, 「<조웅전> 형성의 기저와 영웅의 형상」, 『어문연구』 74, 어문연구학회, 2012; 김용철, 「조웅전의 인물 형상」, 『한국언어문학』 82, 한국언어문학회, 2012; 김용철, 「영웅의 시간/영토 그래프로 본 『조웅전』 -한국의 고전구조 시론 1-」, 『인문과학』 5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유준동, 「완판 『조웅전』의 판본」,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진성운, 「『조웅전』에 나타난 예지담의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이윤석, 「방각본 <조웅전>의 원전」, 『동방학지』 1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이상원, 「<조웅전> 삽입가요의 유통 사례 -『용산세보』 소개-」,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22 등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조웅전>이 서사 안에 다수의 시가⁵⁾를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많이 목격되나 영웅소설에서는 드문 현상인데, 삽입시가만 따로 필사하여 묶은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도 독특하다.⁶⁾ 이러한 연구의 실마리는 이상원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웅전>의 삽입가요는 이두병이 왕위를 찬탈하여 황제가 되는 장면, 조웅이 장소저를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 조웅이 태자를 극적으로 구출하는 장면 등 작품 전개상 결정적인 장면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조웅전>을 읽어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독자들은 삽입가요만 보고도 작품의 주요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 작품을 읽을 때와 비슷한 감흥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조웅전>의 삽입가요 대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⁷⁾

위의 내용에 따르면 <조웅전>에서의 시가는 서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무작위로 드러나는 양태가 아닌 듯하다. 중요한 장면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것, 그리고 시가를 보고 작품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가가 장면을 돋보이게 만든다거나 특정 장면을 대표하는 역할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의 가능성은 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학은 대개 수사적 표현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넓은 구조인 장르에 의존한다. 독자에게 장르의 관례와 기대를 담은 틀이어서 자신이 어떤 것을 읽는지에 따라 기대와 예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웅전>의 독자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영웅소설’을 읽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며, 여기에 부합하는 일정한 서사 전개 및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도중에 시가와 맞닥뜨린다면 독자는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 기존에

5) 여기에서의 시가는 시조, 가사, 한시 등의 운문 문학을 총칭하는 단어로, 이 글에서 다루는 소설 속 삽입 작품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이다.

6) 이상원, 같은 글.

7) 이상원, 같은 글, 408~409쪽.

가졌던 기대 심리가 변화될 것인가. 혹은 서사 전개에 대한 해석에 변화를 부여할 것인가. 이러한 지점에서 화자가 1인칭으로 말하는 ‘시’ 장르와 화자 자신을 포함한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말할 수 있는 ‘서사’의⁸⁾ 교섭이 가져오는 기능적 고찰은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조웅전>에 삽입된 시가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서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가는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서사 전개에 있어 인물의 내면 내지는 감정을 드러내고 인물 간의 갈등과 서사의 감정선을 그려내는 과정을 통해 주제 의식 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장치로 기능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삽입시가가 단순히 정서적 표현을 넘어 작품 전체의 서사적 구조와 주제 의식 형성에 긴밀히 관여한다는 것이다.

기본 텍스트는 <도웅전>⁹⁾을 대본으로 한 『완관 조웅전』¹⁰⁾으로 삼고 그 안에 삽입된 시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조웅전>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피볼 것은 삽입시가의 개별 연구가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논의이므로, 한두 단어 혹은 구의 변화는 전체적인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가 분석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희웅과 이상원의 논의인데 이본 간의 정밀한 비교 분석을 거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먼저 2장에서는 <조웅전>의 서사 구조를 살피며 어느 부분에서 시가가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를 검토하며 서사의 흐름과 감정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정리된 양상

8) 조너선 킬러(Jonathan Culler) 저, 조규형 역,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131~132쪽 참조.

9) 김동욱 편, 『경인고소설관각본전집』 권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3, 147~199쪽.

10) 조희웅 옮김, 『완관 조웅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조희웅은 일러두기란에서 김동욱 편 <도웅전>뿐만 아니라 완관 B(김동욱 편, 같은 책, 103~146쪽)와 완관 C(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고소설총서』 3, 1~177쪽), 회동서관관(회동서관, 『고대소설 조웅전』 상중하 합편, 1925)를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을 토대로 삽입시가와 서사 전개의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한다.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또는 어떤 행위를 성취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문학에서는 내용을 지탱하는 기교나 수법을 뜻한다.

본고는 이러한 개념 위에서 시가와 소설이라는 양식이 공존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는 서로 다른 장르가 공존하는 현상 자체에서 나아가 서정 언표가 서사 담론 내에서 유발하는 긴장감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일련의 분석은 원형 비평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시가가 화자의 무의식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자 상징 장치임을 밝히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삽입시가는 서사 전환의 행위적 장치 혹은 서사의 감정을 형성하는 장치로써 설명될 것이다.

2. 서사 구조와 삽입시가의 양상

주지하듯 영웅소설은 당대 유행하던 소설 장르 중 하나이다. 해당 장르의 서사 구조는 일정한 틀로 요약이 가능할 만큼 전형화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정해진 서사 구조만 갖춘다면 대중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고귀한 혈통이지만 그 잉태와 출생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터였다. 그리고 어려서 기아가 되어 큰 시련을 겪고 조력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후 성장하여 다시 위기를 맞고 투쟁으로 극복해 승리한다는 큰 흐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장하거나 변형하며 작품을 완성하는 식이다.

그러나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관심을 받고 향유된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더 읽히거나 사랑되는 작품이 있었을 테고 보다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조웅전>이 선택한 장치가 ‘시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가는 일차원적이고 단발적인 시각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텍스트에 대한 몰입이나 독자의 감정이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했을 것이라 본다.

즉 영웅소설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 존재한다면, 그것을 형성하거나 이룩 해가는 사건을 확장해감으로써 독자의 몰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 개 중첩되면서 하나의 서사를 이루어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향유된다고 볼 수 있다.

<조웅전>은 크게 3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흡입력을 행사한다. 아래는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 줄거리와 시가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¹¹⁾

권상(卷上)

[발단]

- #1. 송나라 문제(文帝) 시절, 승상 조정인이 간신 이두병의 참소로 자살한다.
- #2. 조정인의 부인인 왕부인이 아들 조웅을 낳는다.
- #3. 황제가 조웅을 불러 태자와 만나게 하고 후에 국정을 도우라 명한다.
- #4. 조정에 이변이 일어나고 황제가 죽자,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가 되고 태자를 정배한다.

[전개 1]

● 국과군망하니 무부지자 ~

- #5. 조웅이 세태 비판 노래를 듣고 이두병에 관한 글을 지어 경화문에 붙인다.

● 송실이 쇠미하니 ~

- #6. 이두병이 조웅과 왕부인을 죽이려 하지만 왕부인이 조정인의 꿈을 꾸 이를 알아차린 후 기이한 배를 타고 피신한다.
- #7. 계량섬 백자촌에 머무르다 왕부인에 대한 개가 권유로 다시 길을 떠난다.
- #8. 머무르던 마을에 도적이 들어 조웅은 왕부인과 헤어지나 왕부인이 조정인의 비각에서 그의 꿈을 꾸며 재회한다.

11) 전체 내용은 그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N은 에피소드 장면, ● 이하 굵은 글씨는 삽입시가를 의미한다.

[전개 2]

#9. 조웅은 월경대사를 만나 강설암에 머무르며 글과 술법을 배워 하산한다.

● 화산도사 일수중하니 ~

#10. 화산도사에게 보검(寶劍)을 받는다.

● 거작십년객이 영견만리의라 ~

#11. 철관도사에게 경전과 병서, 천체, 술법을 배우고 용총(龍聰)을 얻는다.

● 초산의 나무를 ~

● 십년을 공부하며 ~

#12. 위국 장 진사의 집에 머물다가 장 소저와 혼인한다.

● 통소로 장화옥녀급하고 ~

#13. 철관도사의 명령에 위국으로 향한다.

권이(卷二)

[위기 1]

#14. 위국으로 가던 중 황달 장군의 혼령에게 순금 갑주와 삼척장검을 얻는다.

#15. 위국을 위협하던 서번을 격파하고 위국의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태자를 모셔오기 위해 떠난다.

#16. 장 소저는 강호자사의 강혼을 피해 강설암으로 떠나 왕부인을 만난다.

● 화산도사 적기반인고 ~

#17. 조웅은 강호자사의 난정을 정리하고 장 소저의 어머니 위부인과 강설암으로 돌아간다.

[위기 2]

#18. 태자의 귀양지로 향하는 길에 서번왕의 계약으로 위협에 처한다.

● 산사는 갈런지오 ~

● 친금재상 만호후를 ~

● 월대월대 망월대야 ~

#19. 궁녀 금련의 사연에 연분을 맺고 서번의 궁을 떠난다.

● 옥도끼 금도끼 ~

#20. 태자를 만나 구출을 약속한다.

● 산중 작야우에 ~

#21. 사약을 가지고 온 사신을 처리하고 태자를 구한다.

● 반갑도다 반갑도다 ~

#22. 태자와 위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번왕의 계략으로 위협에 처하나 송 문제가 꿈에 나타나 이를 알린다.

권삼(卷三)

#23. 천명도사의 편지로 위기에서 벗어나 위국에 도착한다.

#24. 위왕의 장녀는 태자와, 차녀는 조웅과 혼인한다.

● 석경 쫓는 손이 ~

#25. 조웅이 대국 변양에 있는 학산으로 향하던 중 태자의 귀양지로 가던 사신을 만나 죽인다.

[절정]

● 청산묘이재주어늘 백운심어선경 ~

#26. 천명도사의 편지를 보고 과거 충신들과 왕부인의 사촌 왕렬을 만나 이두병을 칠 세력을 규합한다.

#27. 사신의 죽음을 알게 된 이두병이 군사를 일으키지만 조웅이 승리한다.

[결말]

#28. 조웅의 격서를 받은 조정의 제신들이 이두병과 그의 아들 다섯을 포박하고 조웅을 맞는다.

#29. 태자가 황성에 들어가 이들을 벌한 후 황제로 복위한다.

#30. 조웅이 번왕으로 봉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품의 서사 구조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되어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강조하던 플롯의 형태이며, 장면들이 인과 관계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야기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데 적합한 짜임새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영

웅소설의 서사 요소 역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발단’ 부분이다. 서사의 배경은 당시 많은 소설이 그러하듯 중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송나라의 충신 조정인은 황제를 모시고 피란길에 올랐다가 난을 평정하여 사직을 지킨 인물이다. 비록 거절했으나 황제가 왕에 봉할 정도로 아끼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자식 역시 크게 쓰일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조정인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 간신 이두병으로 인해 자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아들이 바로 <조웅전>의 주인공 조용이다. 조용은 이렇게 훌륭한 신분을 지녔으나 유복자로 태어나 신분적 결핍을 가지게 된다. 영웅소설의 요소로 따지자면 전형적인 ‘고귀한 혈통과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인 셈이다.

한편, 아버지의 원수인 이두병은 황제가 죽자 스스로 황제가 된 후 태자를 몰아낸다. ‘전개 1’은 비극적 시국을 고발하는 <국괴공망하니 무부지자>¹²⁾를 기점으로 촉발된다. 조용이 이두병의 악행을 규탄하는 내용에 격분하여 <송실이 쇠미하니>라는 시를 지어 붙이고, 이로 인해 다칠 화를 피하고자 어머니 손에 이끌려 망명길에 오른 것이다. 이는 ‘기아와 시련’의 단계로, 영웅이 적으로 인해 시련을 겪으며 성장할 계기를 얻는 부분이다.

‘전개 2’는 이두병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조용이 ‘구출자와 조력자’를 만나는 단계로 총 세 명의 스승이 등장한다. 이들과의 만남은 시점이 어긋나거나 인연이 닿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시가를 통해 화산도사와 철관도사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학문과 도술을 배우거나 신물을 받아 실력을 쌓는다.

이 무렵, 조용은 우연히 위국 장 진사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그 집에도 마침 혼기가 찬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담장 너머 장 소저의 노랫소리를 듣고 답가를 부르는데 이를 들은 장 소저가 조용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임을 알게 되고 둘은 그날 밤 연을 맺는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지만 예정된 일정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어 헤어짐의 아쉬움을 노래로 달랜다.

12) 이 글에서 시가의 제목은 작품의 첫 구를 따 제시한다.

이제 서사는 위기로 나아간다. ‘위기 1’은 위국으로 향해 서번을 격파하면서 조웅의 비범한 실력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서사에 다시 애정 요소를 결합시킨다. 장 소저가 강혼 위기에 처했다가 해소되는 부분으로 <화산도사 적기반인고>는 이 곳에 삽입되어 있다.

‘위기 2’는 어릴 때 군주로 모시기를 약속했던 태자 구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시작된다. 노정 중 서번왕의 계략으로 위협에 처하는데, 이 부분에 궁녀들이 부르는 세 편의 시가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태자를 만나 구출하는 과정에서 측근에서 태자를 모시던 매화라는 여인의 시가 세 편이 등장하며, 각각 조웅을 만나기 전과 후, 그리고 구출된 이후의 장면에서 불린다.

‘절정’의 도입 전후에는 시가가 한 편씩 삽입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조웅은 세력을 규합하는 등 이두병을 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여 맞서 싸운다. 그리고 적을 제압한 조웅이 태자를 다시 황제로 앉히고 큰 벼슬을 받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이 부분에 삽입된 시가는 보이지 않는다.

<조웅전>은 군담소설로 분류될 만큼 전투 장면의 비중이 상당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웅전>은 크게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권상」 부분은 129쪽, 「권이」는 114쪽, 「권삼」은 94쪽에 해당하는 분량이다.¹³⁾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권상」에서 「권이」에 이르는 부분이 발단, 전개, 위기 부분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반면, 「권이」의 일부, 「권삼」의 거의 모든 지면이 절정, 즉 주인공의 전투 부분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군담소설로 분류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일 정도이다.

대개 전투 장면의 묘사는 호홉이 빠르고, 직관적이다. 앞서 겪었던 주인공으로서의 시련과 고난이, 그리고 영웅을 예비하며 갈고 닦았던 모든 수련의 결과가 고스란히 제시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수반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부분에서는 시가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주인공의 출생 이후,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과 이야기의 흥미를 유지해

13) 이는 각주 등이 모두 포함된 지면이다.

주는 위기 부분에 특히 몰려 배치되어 있는 것과 양상이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조웅전>은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기본 골자로 삼아 흥미 있는 사건들을 계획적으로 추가하며 독자의 몰입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구성은 잘 의도된 서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인기를 담보 받는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으면서도 서사적 변주가 지속적으로 시도된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장르 교섭 양상이다.

독자는 영웅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출생이나 고난, 성공 등에 얽힌 에피소드를 기대한다. 주인공이 얼마만큼의 지독한 시련을 겪는지, 어떤 기연이 그를 도울 것인지, 주인공이 힘들면 힘들수록 뒤이어 이룩해낼 성공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주인공과 스스로를 달래며 상상하고 욕망한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웅전>의 독자는 중간중간 방해를 받게 된다. 시가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서사 사이에 시가가 삽입되는 순간 서사적 리듬은 단절된다. 그런데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끊어짐을 의미하지만은 않다. 다음 서사와 매끄럽게 연결시키거나 잠시 호흡을 만들어 더 집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가 가지는 장르적 특성 탓이기도 하다. 시가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장르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시가는 수사학과 관련되어 언술적·언어적 수사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이다.¹⁴⁾

정리하자면, 시가는 독자를 매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웅전>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자칫 지루해지거나 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급박한 호흡으로 단숨에 읽어 내려가야 하는 전투 묘사에서는 자취를 감추는 점들이 그 근거이다. 이제 이러한 시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4) 조너선 킬러(Jonathan Culler) 지, 조규형 역, 같은 책, 126~127쪽.

3. 삽입시가와 서사 전개에의 메커니즘

2장에서 살펴본 삽입시가는 대개 사건 전개에 필요한 단락이거나 장면을 보조,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단락과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서정시에 대해 넉지시 듣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어떠한 말을 넉지시 듣는 경우, 우리는 목소리의 어조를 확인하고 자세, 상황, 관심사, 태도를 유추해내며 상황을 상상 혹은 재구성한다.¹⁵⁾ <조웅전>에 나타나는 시가들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텍스트에 삽입된 시가를 살펴면서 서사를 어떤 식으로 지탱하고 있는지 논의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판소리계 작품에 삽입되어 있는 시가의 제작 원리는, 중요 어휘를 중심에 두고 알맞은 사실을 첨가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계열의 작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기에 시가의 어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진다. 이에 원형 비평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면서, 시가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서정시는 강력한 감정의 발현이자 인물의 내면이 직접 발화되는 형태이기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1) 서사 전환의 행위적 장치

먼저, 서사 전개에 필요한 단락을 찾아보면 #5, #9, #10, #11, #12, #18, #25, #26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그 단락들 주변에는 대부분 시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제 이 시가들이 실제로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랬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치로 기능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5는 아버지를 죽게 한 인물인 ‘이두병’이 황제 자리를 꿰차고 태자마저 쫓아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자 조웅이 그를 비판하는 글을 써붙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의 앞뒤로 시가가 삽입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조너선 킬러(Jonathan Culler) 지, 조규형 역, 같은 책, 135쪽.

국과군망(國破君亡)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가 순제 되고 태평이 난세(亂世)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쏘냐
 삼강(三綱)이 불퇴(不退)하니 오륜(五倫)을 고칠쏘냐
 청천백일(青天白日) 우소소(雨蕭蕭)는
 충신(忠臣) 원루(怨淚) 아니시면 소인(騷人)의 화시(花猜)로다
 슬프다 창생(蒼生)들아 오호(五湖)에 편주(扁舟) 타고
 사해(四海)에 노닐다가 시절을 기다려라¹⁶⁾

이 노래는 <관동(冠童)들의 시절가> 혹은 <이두병이 황제 된 후 관동의 시절가>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이두병의 만행에 나라의 인심이 흉흉해지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태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조웅이 장안에 나갔다가 들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형식은 2음보 1구 기준 12구의 가사체이다.¹⁷⁾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가는 조웅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나라는 망하고 임금이 죽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생겨났다. 유교적 관념에서 봤을 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곧 가족의 붕괴이다. 곧 군신 관계와 충절, 도리가 끊기는 처참한 상황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본디 황제였던 문제가 죽고 순제-평순황제(이두병)-가 즉위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세상은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변치 않으니 산천을 고칠 수 없는 법이고 근본 도리인 삼강이 여전히 존재하니 비록 인심이 무너졌을지언정 인류의 질서는 지켜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 언젠가 다시 올 시절을 기다리라는 권유로 시는 끝을 맺는다.

이 시가에서는 사라진 것에 대한 탄식과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기다림의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예컨대 대개 몰락을 의미하는 시어로 자주 쓰이는 ‘국과군망’이나 중국 고사의 쓰임 등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부모가 사라졌으니 이는 세상의 죽음이고 파괴이며 우주가 무너진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어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심

16) 조희웅, 같은 책, 28~29쪽.

17) 이상원, 같은 글, 407쪽

어주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거기에 더해 오호에 배를 띄워 놀다가 다시 돌아 오지 않았다는 범려(范蠡)의 고사를 가져와 오랜 기간 웅크려 지내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어찌면 오지 않을 희망을 그저 기다려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노래를 들은 조웅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두병을 규탄하는 글을 지어 쓴다. <조웅이 이두병을 욕한 시라>라고도 불리며 조웅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형식은 2음보 1구 기준 28구의 가사체이다.¹⁸⁾

송실이 쇠미하니 간신이 만조(滿朝)로다
만민이 불행하여 국상(國喪)이 나시도다
동궁이 미장(未長)하니 소인의 득세추(得勢秋)라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슨 부족함으로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완전커늘 네 어이 장수하리
동궁을 어찌하고 옥새를 전수(傳受)하노
진시황(秦始皇) 날랜 사슴 임자 없이 다닐 적에
초패왕(楚霸王)의 개세기(蓋世氣)와 범증(范增)의 신묘(神妙)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든
어일사 저 반적(叛賊)아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身命)을 돌아보아 송업(宋業)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조(條條)이 생각하니 일필로 난기(難記)로다¹⁹⁾

조웅이 본 송나라는 왕조가 기울어지면서 조정에 간신이 가득한 상태였다.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하니 만백성이 행복할 리 있겠는가. 거기에 더하여 운도 없이 국상을 당하지만 태자가 아직 어렸기에 소인배들이 권세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두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예부터 소인배 이두병은 일품 벼슬을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역적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18) 이상원, 같은 글, 407쪽.

19) 조희웅, 같은 책, 37~38쪽.

가 없으며, 하늘의 명이 다했으니 장수할 수 없다고 노여워하기도 한다. 또한 진시황의 포악함과 초폐왕의 기개와 항우의 범종의 지략으로도 함부로 임금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다고 탄식하며 왕권 찬탈을 강하게 비판한다. 하늘과 땅이 용서치 못할 그의 죄를 울분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태자를 귀양 보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를 찬탈했다는 점에서 이두병은 도덕적인 약점을 지닌 인물로 규정되고, 조웅은 이러한 인물을 비판하는 글을 지음으로써 선한 인물로서 역적과 대비되며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영웅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두병이 화근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조웅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이 시기는 둘 사이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추동한다 하겠다. 정리하자면, 주인공에게 자극을 준 것은 <국과군망하니 무부지자>였고, 이에 대한 대답이자 주인공의 의지 내지는 목소리로 대변되는 <송실이 쇠미하니>는 조웅이 기아와 시련의 단계로 진입하는 열쇠가 되는 셈이다.

#9~#11은 조웅이 스승을 만나 배움과 신물을 얻는 과정이다. 강설암에서 월경대사의 보호와 가르침 아래 생활하던 조웅은 나라의 상황을 알아본다며 길을 떠난다. 그리고 강호 땅에 이르러 시장을 구경하다가 칼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 칼은 “모양이 웅장”하여 가지고 싶은 “욕심이 간절”해졌으나 “천금(千金)이 넘”는 가격에 돈이 없던 조웅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검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조웅은 차마 떠나지 못했다. 날이 저물어 장이 파하고 노인이 돌아가기를 3일째 되는 날, 노인의 앞에 “무슨 글귀”가 “판 위에 붙”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산도사 일수중(華山道士一袖重)하니
 월패가에 여매검사(如賣劍士)라
 인인일검(人人一劍)이 가기허(價幾許)오
 옹도삼시(翁道三時)에 오유사(吾有俟)라
 분분시장(紛紛市場)에 기남자(幾男子)런고
 전과천인(前過千人)에 불원매(不願賣)라
 웅아 소식(雄兒消息)을 문수지(問誰知)할꼬

좌작지이(坐則支頤)하고 기원시(起遠視)라²⁰⁾

화산도사의 한 소매가 무거우니 행색이 마치 칼을 파는 선비 같다. 지나는 사람마다 칼의 값을 묻지만 도사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며 팔지 않는다. 그저 ‘웅’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에 조웅은 크게 기뻐하며 노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칼값을 물었다. 노인 역시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늘이 보검을 주었으며, 주인을 찾기 위해 온갖 곳을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천기(天氣)가 조웅이 있는 곳을 가리키더라는 것이었다. 조웅은 이를 계기로 길이가 삼 척에 달하고 칼 가운데 금으로 ‘조웅검’이라 적힌 칼을 얻게 된다. 헤어지면서 노인은 ‘철관도사’를 소개하며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낭패할 것이니” 각별히 삼가고 잘 살펴 관산으로 가라고 당부한다.

조웅은 관산으로 철관도사를 찾아갔지만 집에 혼자 있던 동자가 도사의 출타를 알려주었다. 그 뒤 두 번을 더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기다리다 글을 써 전하며 떠난다.

거작성년객(遽作十年客)이
영견만리외(迎見萬里外)라
몽택에 용유비(濛澤龍遊飛)거늘
시성이 미달야(是聲未達也)라²¹⁾

십 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왔으며, 흐린 연못에 용이 노닐다 날아오르거늘, 이 소리가 닿지 않는다며 도사를 만나지 못함을 애달파하는 내용이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철관도사가 내려와 글을 읽고 놀라 조웅을 불러 경전과 술법 등을 가르쳤다. 글이 아니었다면 조웅의 비범함을

20) 조희웅, 같은 책, 84~85쪽.

21) 조희웅, 같은 책, 92쪽.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조웅은 그곳에서 한 마리의 말을 보게 된다. “하늘이” 내린 “용총(龍聰)”으로 “반드시 임자가 있”을 것인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말이었다. 조웅이 용마와 조우하는 순간 용마가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니 도사를 찾아와 배움과 “순식간에 칠백 리 강호에 이르”는 말을 얻게 된 셈이었다.

이 두 편의 한시는 서사 전개상 결코 생략될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 시들이 없었다면 신물이나 평생 스승으로 모실 도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조력자를 만나거나 기연을 얻는 영웅소설 서사에 빈 곳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주인공은 후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이야기의 당위성과 흥미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12는 조웅이 장 소저와 혼인하는 과정을 담은 장면이다. 조웅이 장 소저와 처음부터 대면한 것은 아니다. 그저 “어떤 아이 과객(過客)”으로서 혼자 초당에 앉아 “인재를 구한다 하더니 종시 몰라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그때 안에서 거문고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초산의 나무를 베어 객실을 지은 뜻은 인걸(人傑)을 보렸더니 영웅은 간데없고
결객(乞客)만 흔히 온다

석상의 오동 베어 금(琴)을 만든 뜻은 원앙을 보렸더니 원앙은 아니 오고 오작
(烏鵲)만 지저귐다

아이야 잔 잡아 술 부어라 만단수회(萬端愁懷)를 지어볼까 하노리²²⁾

이 노래는 <장소저의 탄금가> 등으로 제시되는 사설시조이다.²³⁾ ‘초산’은 영웅을 기다리는 공간이자 세상 구원의 꿈을 상징한다. 그런데 영웅은 오지 않고 결객만 올 뿐이다. 장 소저의 처지를 미루어보건대 영웅은 자신이 소망하는

22) 조희웅, 같은 책, 100쪽.

23) 이상원, 같은 글, 406쪽.

훌륭한 신랑감이며, 그가 기다리는 이상적인 낭군이 오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상의 오동을 베어 거문고를 만든 것은 금실이 좋은 원앙을 보고자 함이었는데 까마귀와 까치만 와서 지지킨다. 즉 영웅으로 치환되는 훌륭한 신랑감은 원앙으로, 걸객은 시끄러운 까마귀와 까치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로 근심과 걱정을 풀고자 하는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조용이 통소를 불며 화답하였다.

십 년을 공부하며 천문도를 배운 뜻은
월궁(月宮)에 솟아올라 향아(姮娥)를 보려했더니 세연(世緣)이 있다더니
은하(銀河)에 오작교(烏鵲橋) 없어 오르기 어렵도다

소상(瀟湘)의 대를 베어 통소를 만든 뜻은
옥섬(玉蟾)을 보려 하고 월하(月下)에 슬피 분들 지음(知音)을 뉘 알리오
두어라 알 이 없으니 원객(遠客)이 수회를 위로할까 하노라²⁴⁾

<조용의 화답가> 혹은 <조용이 이 곡조 화답> 등으로 불리는 이 노래는 사설시조 2수이다.²⁵⁾ 첫 수에서 화자는 십 년을 공부하여 천문을 익힌 이유에 대해 달궁에 올라 향아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다. 천문 학습과 달궁, 향아의 이미지는 초월적 이상을 지향하는 상징 체계로 작동하며 현실 너머의 이상적 존재 혹은 궁극적인 합일을 향한 욕망을 표상한다. 그러나 은하수에 오작교가 없었기에 화자는 결국 향아와 만날 수 없었다. 현실적 제약에 의해 욕망이 좌절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수에서 소상의 대나무로 통소를 만들어 달 속 두꺼비를 보고자 했다는 표현 역시 그의 욕망을 상징하는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빛 아래 슬피 불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알아줄 이도 없으니 그저 원앙의 회포나 위로하리라고 끝을 맺는 노래는 이상적 존재와의 합일

24) 조희웅, 같은 책, 101~102쪽.

25) 이상원, 같은 글, 406쪽.

을 이루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절절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가의 역할이다. 이 시가는 단순히 화자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나 결핍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해소하는 서사 전개 예비 장치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노래를 들은 부인과 장 소저가 조용의 “얼굴이 관옥 같고 거동이 비범”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성인이 나시매 기린이 나고 경아(瓊兒) 나매 영웅이” 났다며 그토록 찾던 사뭇감임을 알아본 것이다.

특히 두 시가가 폐쇄된 공간인 담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대비 속에서 제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 구조는 인물 간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지만, 시가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음성 매체가 되어 주인공과 연인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만날 길이 요원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평생의 연인을 바라는 인물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18은 서변왕이 조용을 회유하기 위해 궁녀들을 이용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두 명의 아름다운 궁녀가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시가로써 조용을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노래들은 결과적으로 조용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조용을 “달래어 회심(回心)”케 하려던 궁녀 ‘월대’는 <산사는 갈런지오>²⁶⁾와 <친금재상 만호후를>²⁷⁾을 지어 부른다. 이들은 모두 조용의 충절을 변절케 하려는 내용이었기에 조용은 화를 참지 못하고 궁녀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서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요망한 년이 수작을 잘못하였”다며 다른 궁녀를 보내기에 이른다. 이번에 등장한 궁녀는 ‘금련’으로 19세의 절대가인이었다.

26) 산사는 갈런지(曷戀之) 양남(揚南)은 제왕주(帝王州)라 / 외외(巍巍)한 궁궐은 뉘를 의지하여 비워 놓고 / 아마도 임자 되고자 하니 천분토(天分土)인가 하노라 (조희웅, 같은 책, 196~197쪽)

27) 친금재상(千金宰相) 만호후를 / 노(怒)타 하여 가지 마오 / 오강(烏江) 연월(烟月)에 / 초패왕(楚霸王)을 생각하면 / 평생 적취지한(積聚之恨)을 / 못 잊을까 하노라 (조희웅, 같은 책, 197쪽)

거문고를 안고 노래를 부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대 월대 망월대야 일월같이 빛난 충(忠)을
청가(淸歌) 일곡으로 네가 어찌 굽힐쏘나
미재(美哉)라, 송실지보혜(宋室之寶分)여 송실지보혜로다²⁸⁾

시는 먼저 찾아와 죽임을 당한 ‘월대’를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서 조웅의 결코 굽히지 않을 빛나는 마음을 노래 한 곡으로 꺾으려 했던 월대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웅의 도덕적 위상을 월대의 행위와 대비시켜 한 차원 높은 가치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어 조웅의 충절을 송나라 황실의 보배라 칭하며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분명 서번왕의 사주를 받고 찾아온 궁녀이건만 노래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조웅의 충절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궁녀는 본인을 “본디 번국 사람이 아니”며 위국의 사람이었으나 난 중에 잡혀온 사람이라 설명한다. 이미 노래로써 자신의 굳건한 마음을 알아준 여인이, ‘대원수’의 지위를 준 위국의 여인으로 아픈 사연까지 지니고 있어 조웅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다. 그는 금련과 동침 후 이튿날 함께 떠난다.

정리하자면, 앞선 두 수의 시조는 월대를 배제하고 금련이 등장하는 필연적 결과물로 작용했고 뒤의 시조는 월대의 노래에 잠재되어 있던 흑막과 대비되면서 조웅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인공의 충절을 위협하는 유혹, 곧 긴장을 해소하고 인물 관계를 재편하여 이후 조웅과 금련의 결연을 정당화하는 전환점으로 작동한 것이다.

#24, #26은 복수 단계로의 진입을 예비하는 장면이다. 조웅은 태자를 구해 위국에 도착한 후 강설암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층암절벽 상에 한 여동(女童)”이 약초를 캐며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된다. <석경 쫓는 손이>²⁹⁾는 학산으로 향

28) 조희웅, 같은 책, 199쪽.

29) 석경(石徑) 쫓는 손이 속객(俗客)일시 분명하다 / 팔천 병 어디 두고 독행천리(獨行千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기이하게도 아이는 돌연 사라져 버린다. 이후 조응은 학산으로 향하던 길에서 이두병의 명을 받고 태자를 해하려는 사신을 만나 처단한다. 그가 학산 근처에 도착하자 한 승려가 글을 주고³⁰⁾ 충암절벽으로 사라졌다. 글을 따라 집에 찾아가니 천명도사가 왕래하는 집이었으나 도사는 없고 급히 학산으로 가라는 편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선 조응은 과거 송나라의 문제를 모시던 충신들과 어머니의 사촌인 ‘왕렬’을 만나 자신만의 군사를 꾸리게 되었다.

학산이라는 공간은 세력 규합의 장소이자 복수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 삽입 시가는 그 공간으로 인물을 이동시키는 방향 지시 장치로 작동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삽입된 시가는 서사의 절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자 구조적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앞선 단계가 영웅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 단계는 그것을 확장하여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국면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삽입시가는 서사의 장식적 요소나 등장인물의 단순한 감정 표현 요소라고 할 수 없다. 시적 발화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발화를 통해 서사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촉발하고 있다. 즉, 시를 ‘말하는 행위’가 곧 등장인물의 ‘행동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결국 시는 이야기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적 장치로 작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조응전>의 서사 구조는 보다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2) 서사의 감정 형성 장치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시가가 삽입된 장면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살펴본

하시는가 / 구은(舊恩)을 생각하고 선생을 찾아온들 / 은대(恩待) 보필(輔弼)하니 백운을 잡아타고 / 소행(所行)이 망망하다 / 암상에 저 장군은 갈 길이 바쁘지라 / 학산(鶴山)에 유사(有事)하니 그리로 갈지어다 (조희웅, 같은 책, 270~271쪽)

30) 청산묘객주(靑山渺而客走)어늘 / 백운심어선경(白雲深於仙境)이라 / 옥제백이 청유(請誘)하니 / 가유사어기상(可有舍於其上)이라 (조희웅, 같은 책, 274쪽)

다. 앞서 논의한 시가를 제외하면, 작품에서 시가가 삽입된 부분은 #12, #16, #20, #21이다.

먼저 #12의 조용과 장 소저의 만남 이후에 실린 시는 <조용이 장소제와 작별시라>라고도 불리는 <통소로 장화옥녀금하고>³¹⁾이며 칠언율시에 토를 단 형식이다.³²⁾ 앞서 #12의 장면을 소개하며 두 남녀의 대략적인 만남 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시가는 조용과 장 소저가 하룻밤의 운우지정을 나눈 뒤 이별하는 장면에 배치되어 있다. 조용이 모친을 떠난 지 삼 년이 흘러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되며, 장 소저가 슬피 울면서 둘 사이의 증표를 요구하고 이에 조용이 부채에 시를 써준 것이다.

시가는 두 인물의 정서적 교감을 응축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소절에서는 통소로 장 소저의 거문고에 화답한 일로 교감의 순간을 환기하며 사랑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 소저의 꽃다운 인연은 자신임이 분명하다는 선언으로 관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어 밤새 이어진 사랑의 시간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며 새벽바람 속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눈물을 참고 이별하는 장면은 감정의 고조를 절제된 언어로 담아내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사랑의 설렘과 걱정, 이별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러나 담담하게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20은 장면의 앞뒤로 시가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치를 통해 태자의 처지와 상황을 절망과 희망이라는 상반된 정서로 교차 형성하는 대목이다. 먼저 앞의 시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옥도끼 금도끼 양풍 나라 들게 갈아

31) 통소로 장화옥녀금(長和玉女琴)하고 / 적막심규(寂寞深閨)에 광부지(狂夫至)라 / 금야아랑(今夜兒郎)이 수가아(誰家兒)오 / 장씨방연(張氏芳緣)의 조용시(趙雄是)라 / 문장취벽(紋帳翠壁)이 괘일포(掛一袍)하니 / 분도화연(奔到華筵)에 농가희(弄佳姬)라 / 신흥수어(晨風數語) 엄루사(掩淚辭)하니 / 소식(消息)이 망망(茫茫) 부도시(不道時)라 (조희웅, 같은 책, 109쪽)

32) 이상원, 같은 글, 406쪽.

배도다 월궁(月宮) 계수(桂樹) 배도다
 모이나니 계양도라
 모시도다 모시도다 우리 황자 모시도다
 설리매(雪裏梅) 한 가지에 상풍(霜風) 불어 꽃 피도다
 모이도다 모이도다 송조(宋朝) 충신 모이도다
 …… (중략) ……
 소슬한풍(蕭瑟寒風) 일어나며 열충신(烈忠臣) 부여잡고
 눈물로 하직하니 미귀혼(未歸魂)이 아니신가
 바라나니 청산(靑山) 매화 묘하(墓下)에 심어주오³³⁾

위의 노래는 <매화의 상별곡> 혹은 <송태자생별곡>이라고도 불리는 2음보 1구 기준 25구로 된 가사체 작품이다.³⁴⁾ 태자의 관비 매화가 부른 노래로, 황제가 태자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앞둔 태자의 비극적 처지와 이별의 서글픈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옥도끼와 금도끼를 잘 갈아 달나라의 계수나무를 벤다. ‘옥도끼’와 ‘금도끼’는 하늘의 도구이고 ‘달나라’의 ‘계수나무’ 역시 하늘의 나무이다. 도끼로 월궁의 계수나무를 벤다는 것은 불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인간의 덧없음이나 고귀한 존재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태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어 태자를 모시는 충신들이 계양도에 모이는데, 실상은 죽음을 앞둔 황자의 마지막 호위라는 점에서 비극성이 심화된다. 그리고 눈 속의 매화가 서리에도 꽃을 피어내니 화자의 충절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매화는 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눈 속에서 피는 매화는 절개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오랜 기간 태자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매화 자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사 말미에 ‘매화’를 ‘무덤 아래에 심어’달라는, 즉 태자가 죽더라도 곁에 머물겠다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애도의 표현이 아니다. 죽음

33) 조희웅, 같은 책, 202~204쪽.

34) 이상원, 같은 글, 406쪽.

이후에도 태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충절의 맹세다.

노래를 끝마친 대화는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자리를 채우고 있던 모든 신하 또한 몹시 슬퍼했다. 본디 황제의 자리는 태자의 것이고 송나라의 적통이 억울하게 끊어진 상황에, 이제는 목숨이나마 부지하고 있던 것도 거둬들인다고 하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던 것이다. 시가는 이러한 상황을 절절하게 전하며 듣는 이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의 구조적 특징은 비극적 정조가 곧바로 전환되는 데 있다. 신하들이 모두 물러나고 조웅이 나타나 백 리 밖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았으며, 태자를 모시러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순간, 서사의 분위기는 반전된다.

산중 작야우(昨夜雨)에 봄소식 들어보나
오며 아니 읊은 설매(雪梅) 네 알리라
매화야 알린마는 양류(楊柳) 알까 하노라³⁵⁾

위의 시는 <매화의 설매가> 혹은 <그때 매화가 모든 충신들에게 알린 곡조> 등으로 불리는 시조 형식의 노래이다.³⁶⁾ 태자가 사약을 먹는 날, 그의 “희색이 만안”한 것을 보고 충신들이 의아해하며 그 까닭을 묻는다. 이에 태자가 “나의 즐거운 일은 매화가” 안다고 답하고, 여기에 대한 매화의 답이 바로 위의 시이다.

산속 전날 내린 비에 봄의 소식이 들려오는 듯하다. 봄은 자연 현상인 동시에 생동하는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여기에서 들려올 봄소식은 ‘새 생명’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정된 죽음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반전되었다는 암시로 해석이 가능하다.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인 것이다.

봄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는 눈 속의 매화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여기에서 매

35) 조희웅, 같은 글, 207쪽.

36) 이상원, 같은 글, 406쪽.

화는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양류’는 봄이 완연해야 비로소 푸르러지는 존재로 아직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희망이 임박했다는 암시가 매화를 통해 전달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노래 이후 충신들이 크게 기뻐하며 조ungs을 기다리게 되는 전개는, 앞선 상황과 대비되어 독자로 하여금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반갑도다 반갑도다 설리(雪裏) 춘풍 반갑도다
 더디도다 더디도다 천리마(千里馬) 타온 행차
 어이 그리 더디든고
 …… (중략) ……
 오후라 우리 황명(皇命) 시각(時刻)을 다투는 듯
 약기(藥器)를 내오고 백발 충신 결박하니
 일월이 무광하고 창해(滄海)가 뒤늦는 듯
 …… (중략) ……
 혼백이 욕비(欲飛)할 제
 일진(一陣) 광풍 일어나며 천리마상 반갑도다
 …… (중략) ……
 배달직입(排闥直入) 한 걸음에 사생을 바꿔오니
 약기도 간데없고 결박 충신 춤추거니
 어와 백성들아 창해(滄海)로 태평주(太平酒) 빚어
 여군동취(與君同醉)하여 만세(萬歲) 동락하오리라
 만세 만세 만만세(萬萬歲)에 공덕을 쌓으리라³⁷⁾

날이 밝아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 사약을 내오고, 모든 충신이 결박된 긴박한 상황에서 조ungs이 군사를 몰고 와 이들을 구해낸다. 그리고 이어진 태평연(太平宴) 자리에서 백여 명의 충신이 춤을 추며 자리를 즐겼고, 매화가 거문고를 안고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위의 2음보 1구 기준 88구로 된 가사체 작품이다.³⁸⁾

37) 조희웅, 같은 책, 210~221쪽.

어려서 유배를 당하고 결국 사약을 받는, 태자의 '설리'와 같은 시련과 고통의 상황을, 조웅이라는 '춘풍'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녹여내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이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죽음과 생명, 절망과 희망의 대립 구조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어 어찌 더 빨리 오지 않았는지 짐짓 아쉬웠던 마음을 노래한다. 이는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태자를 죽이라는 황명이 내려오고, 사약을 받고 충신들이 결박당했던 절체절명의 상황과, 조웅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며 현재를 더욱 벅차고 기쁜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 가사는 <조웅전>에 삽입된 시가 중에서도 장편에 속한다. 그러나 특별히 사건 자체를 새롭게 전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모두가 죽음을 앞둔 위기의 상황에서, 조웅의 등장으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진 직후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서사의 감정을 형성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서사는 사건을 전달하고, 시가는 그 사건의 정서적 무게를 확장한다. 여기에서 이 노래는 절망에서 환희로의 극대화된 감정 곡선을 다시금 짚어줌으로써 독자가 서사의 전환을 체감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한 시가들은 생략되더라도 글을 읽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가가 가지는 기능이 드러난다. 서사 안에 삽입된 시가는 실상 사건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거나 쉽게 보이지 못했던 내재된 정서를 표출하는 역할을 했다. 엄밀히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내면의 차원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정 하에 삽입시가는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의 감정 반응을 조직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가가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서사적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는 말이다.

19세기 이후 출판 환경의 변화와 이를 수용하는 문화적 기반은 본질적으로

38) 이상원, 같은 글, 405쪽.

양질의 문학 작품 생산을 요구하였다. 그 중 인기 작품이었던 소설 <조웅전> 곳곳에 시조, 가사, 한시 등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시가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데 적합한 장치로 작용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삽입시가는 서사 내 감정의 고저를 조율하고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촉진하는 전략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조웅전>에 삽입되어 있는 시가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시들이 작품의 서사 전개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시가는 서사적 리듬을 조율하고 서사의 전환과 인물의 감정선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서사 구성 요소임을 밝혔다. 즉 <조웅전>의 삽입시가를 단순한 감정 표현의 매개체뿐만 아니라, 인물의 행위와 서사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읽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삽입시가를 서사 구조의 한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고전문학 연구에서 시와 서사의 관계를 보다 능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조웅전> 이외의 다양한 서사 텍스트에서도 삽입시가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시적 발화가 서사 형성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가 자체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도 총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 부분은 훗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권순궁, 「한국 고소설 텍스트의 존재방식과 소통 -<토끼전>의 경우-」, 『고전소설의 소통과 교섭』, 보고사, 2013.
-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 저,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 이상원, 「<조웅전> 삽입가요의 유통 사례 -『용산세보』 소개-」,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 조너선 컬러(Jonathan Culler) 저, 조규형 역,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 조희웅 옮김, 『완판 조웅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53,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 Abstract |

Patterns and Functions of Inserted Siga in *Jo Woong-jeon*

Ko, Seong-hye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This article analyzes the inserted poetry(Siga) within *Jo Woong-jeon* and examines its functional roles within the narrative. By virtue of their generic characteristics, these poems serve as devices that deepen thematic resonance; they reveal the characters' internal emotions while delineat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d the narrative's emotional trajectory. Consequently, the inserted Siga transcend mere emotional expression, playing a vital role in shaping the work's structural and thematic framework.

The study first explores the organized structure of *Jo Woong-jeon*, demonstrating how the placement of Siga influences the formation of narrative flow. Chapter 3 then analyzes the mechanisms of narrative development based on these identified patterns. This discussion moves beyond the simple coexistence of genres to reveal the tension generated by lyrical utterances within narrative discourse. Grounded in archetypal criticism,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Siga function as symbolic devices expressing the speaker's unconscious mind. Ultimately, these inserted poems are identified as performative devices that drive narrative

transformation and solidify the narrative's emotional architecture.

Key words : Jo Woong-jeon, Inserted Siga, Inserted songs, Genre negotiation, Genre fusion